FIXED
INCOME
STRATEGY

2025. 11. 4

글로벌채권팀

김은기 팀장/Credit Analyst
creditbond.kim@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과 투자 전략

계절성에 의한 스프레드 확대 압박

계절성에 의한 스프레드 확대 압박

전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 부담과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계절성에 의한 스프레드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

11월에 들어서면서 연말 계절성에 의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연말/연초효과의 계절성이 큰 특징이 있다. 연말 채권 관련 자금 유출과 북클로징(Book-Closing)으로 채권 매수 수요 감소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압박이 크다. 그러나 연말 유출된 채권 관련 자금이 연초 재유입되면서 다시 북빌딩(Book-Building)으로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축소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다. 최근 크레딧 스프레드는 작년 5월말 전저점을 하회한 수준이다. 크레딧 펀더멘탈이 개선되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됐다기 보다는, 작년 대비 4분기 회사채 발행 물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최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크레딧 채권이 국채 금리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전저점을 하회하는 낮은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을 감안할 때, 11월 이후 연말까지는 계절성에 의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게다가 11월 중순 3분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 CP 정기 평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투자자 심리에 부담이 크다. 올해 CP 정기 평정에서 업황 둔화로 대부분 기업이 부정적 등급 전망을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섹터별 스프레드에서 10월말 여전채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 동안 레포펀드의 매수가 여전채에 집중되면서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 역전이 지속됐다. 지표상으로는 아직 여전채와 RP금리의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된 상태로 레포펀드의 여전채 매수에 따른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RP 및 CD등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레포펀드의 추가 매수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의 역전 현상은 오래 지속되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등급 신용도에 대한 불안 요인은 남아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듀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한 캐리 수익에 대한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장기 국채(국채 10년물) 금리 수준이 회사채 AA-등급 3년물 수준과 비슷해지면서, 더 이상 우량 등급 투자만으로는 캐리 수익을 통해 수익률 개선이 어렵다. 듀레이션 리스크를 줄이면서 캐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기 비우량 크레딧 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투자자 수요도 만기 2년물 이하 A등급 여전채 및 회사채에 집중되고 있다.

리서치센터 글로벌채권팀
김은기 팀장/Credit Analyst
creditbond.kim@samsung.com

REPORT
CONTENTS

01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 4p

02 크레딧 채권 투자 전략 17p

PART 01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

10월 크레딧 시장 리뷰: 레벨 부담에도 전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강세가 지속됨

10월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 부담에도 축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매우 강한 크레딧 시장 강세를 보임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되면서 스프레드 레벨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강세가 이어짐

▶여전채 강세가 이어지면서 회사채도 키 맞추기 차원의 동반 강세가 지속됐으나, 10월말이 다가오면서 여전채가 급격히 약세로 전환됨

▶AA등급 이상의 우량채 위주로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우량채가 우량채 강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폭 약세

섹터별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변동 폭	**10월**	**변동 폭**
공사채	16.7	17.7	15.8	21.4	18.9	53.2	38.4	23.9	18.9	0.7	**17.9**	-1.0
은행채	19.8	21.0	18.2	24.0	20.4	50.8	51.5	31.6	20.4	-1.0	**18.7**	-1.7
카드채 AA+	34.9	37.0	30.5	49.8	39.1	109.7	75.1	45.8	29.7	-5.2	**27.8**	-1.9
여전채 AA-	66.3	60.2	41.4	72.0	58.0	134.7	111.2	66.2	41.9	-5.7	**40.0**	-1.9
여전채 A+	137.4	129.1	84.3	112.6	84.2	164.6	205.6	166.0	124.1	-6.9	**120.5**	-3.6
회사채 AAA	28.7	31.9	28.0	36.6	30.4	81.3	58.3	40.6	28.7	-3.1	**24.3**	-4.4
회사채 AA-	44.7	44.0	37.0	58.6	42.3	95.5	81.4	56.6	43.6	-2.9	**40.4**	-3.2
회사채 A+	106.4	82.3	59.5	82.9	63.2	110.5	145.2	102.1	84.3	-3.1	**81.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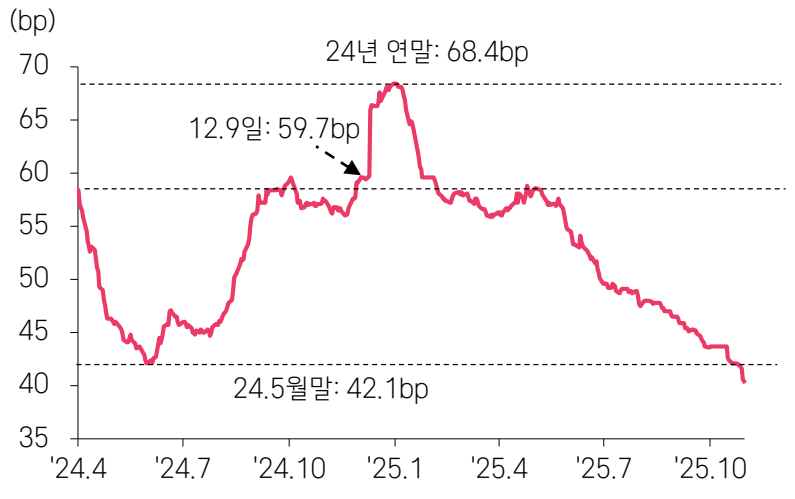
참고: 연간/분기 및 월 평균(민평 3사, 3년물), 2025년 10월은 10.31일 기준
자료: Infomax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의 레벨 부담이 큰 상황

올해 4월말부터 시작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되면서, 작년 5월말 전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낮은 스프레드 레벨의 부담이 커짐

- ▶ 올해 크레딧 스프레드는 연초효과로 급격한 축소세를 보인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4월말 이후 다시 축소세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임
- ▶ 최근 크레딧 스프레드가 작년 5월말 전저점을 하회하고,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자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 부담이 커지고 있음
- ▶ 10월 이후 회사채 발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수급적 우위를 이미 선반영한 레벨이며, 추가 축소의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임

올해 4월말부터 시작된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되면서 작년 5월말 저점을 하회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전저점을 하회했지만, 추가 축소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레벨 부담은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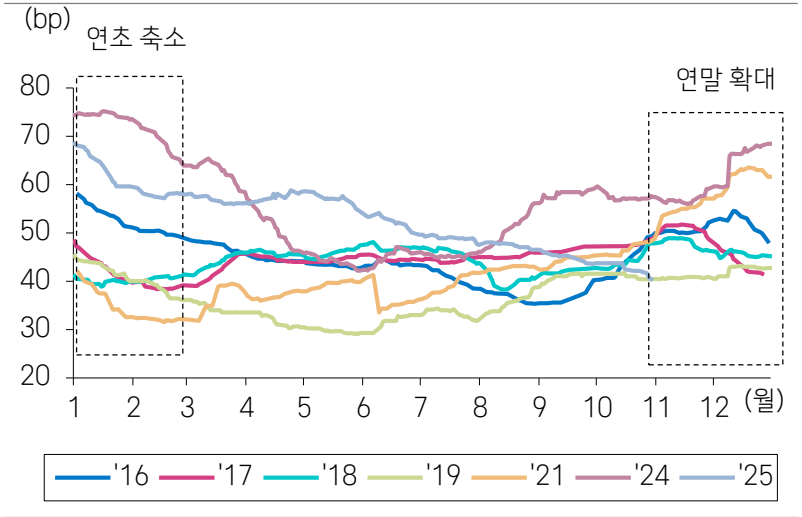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연말효과와 연초효과의 반복성을 나타내는 크레딧 스프레드의 계절성

크레딧 스프레드는 연말 확대와 연초 축소라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면서, 연초를 기준으로 U자형 패턴으로 11월 이후 확대 폭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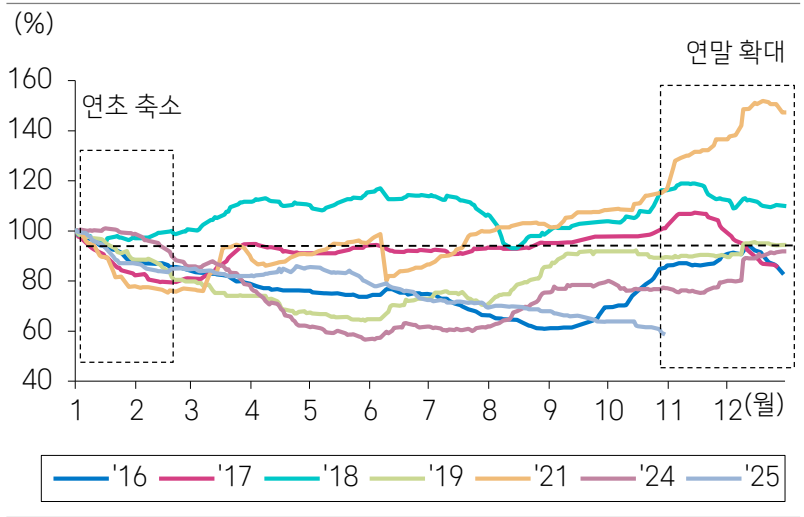
- ▶ 크레딧 스프레드의 가장 큰 특징은 연말 확대와 연초 축소로 크레딧 이벤트(최근 코로나19 및 레고랜드 사태)를 제외하곤 대부분 발생
- ▶ 연말 확대 이후 연초 축소가 반복되자, 4분기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폭이 커지면 오히려 12월에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경향도 나타남
- ▶ 연말 스프레드 확대는 11월 이후 본격화, 최근 전저점을 하회하는 스프레드 레벨을 고려할 때 계절성에 의한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

연말 확대와 연초 축소의 계절성: 11월부터 계절성에 의한 스프레드 확대 압박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코로나19('20년)와 레고랜드 사태('22~23년 제외)
자료: Infomax

U자형 패턴: 3분기 저점을 보인 이후 4분기 확대로 11월 이후 확대 폭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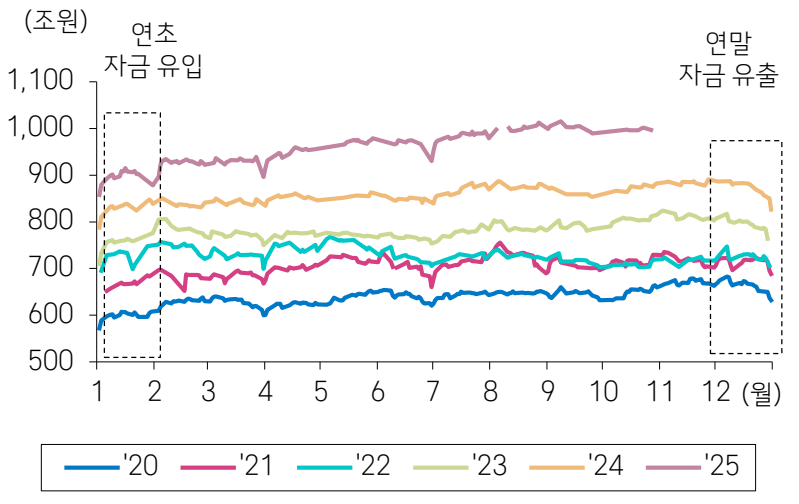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 연초(=100) 대비 비율, 코로나19('20년)와 레고랜드 사태('22~23년 제외)
자료: Infomax

크레딧 스프레드 계절성의 원인은 채권관련자금의 유출입이 가장 큰 요인

크레딧 스프레드 계절성의 가장 큰 원인은 연말 채권관련자금이 유출되고 연초 재유입되는 자금 이동 패턴에 따른 수급 요인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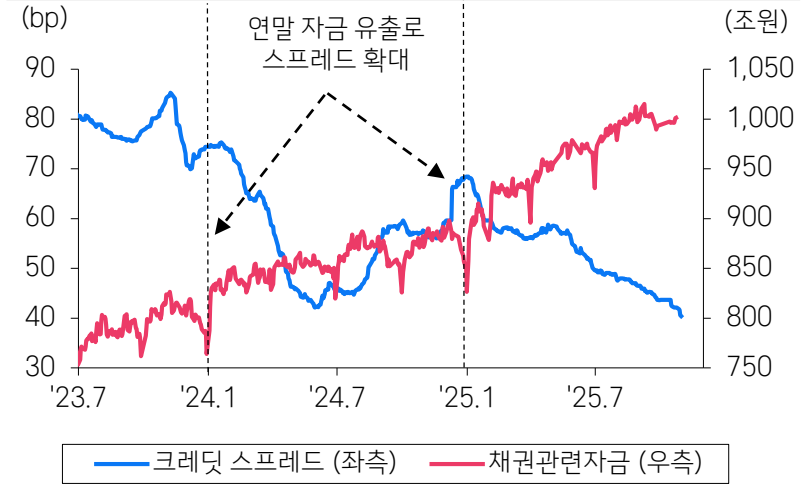
- ▶ 채권관련자금은 분기 말 자금 유출과 분기 초 재유입의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말 자금 유출과 연초 재유입 규모가 가장 큼
- ▶ 연말 환매에 따른 채권관련자금 유출과 북클로징에 들어가면서 채권 매수 감소와 매도 증가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가 나타남
- ▶ 채권 자금 유출은 연말에 본격화되지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채권 매도가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프레드 확대는 11월부터 나타남

채권관련자금은 연말 자금 유출 및 연초 자금 재유입의 패턴이 강함



참고: 채권관련자금(금전신탁+MMF+장단기/혼합채권+대고객RP매도)
자료: Infomax

연말 채권관련자금 유출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가 뚜렷



참고: 채권관련자금(금전신탁+MMF+장단기/혼합채권+대고객RP매도)
자료: Infomax

연말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로 인해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폭이 커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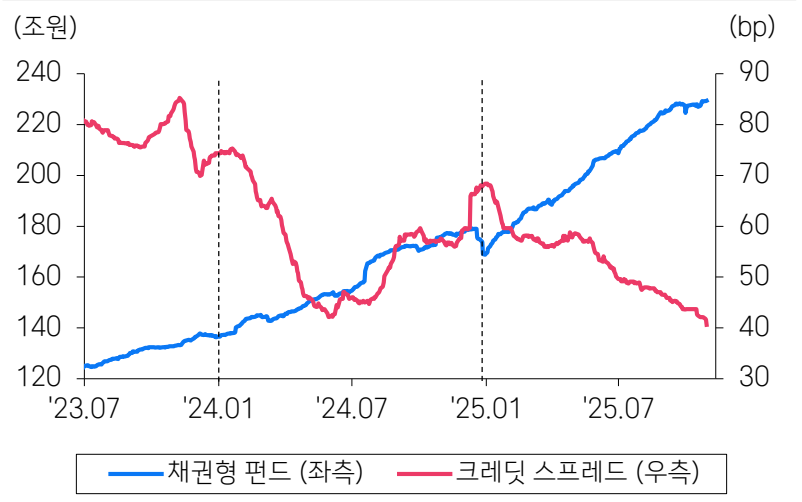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 속도 둔화 → 올해 연말 큰 폭의 자금 유출로 스프레드 확대 폭이 커질 수 있음

- **채권형 펀드 자금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빠른 속도로 유입됐음**
-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면서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작년 말 큰 폭의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이 나타나면서 스프레드 확대 폭이 컸던 만큼, 올해 연말 스프레드 확대 폭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

'23년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 지속 → 최근 둔화

참고: 채권형 펀드 잔고 추이
자료: Infomax

'23년 말에 비해 작년 말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로 연말 스프레드 확대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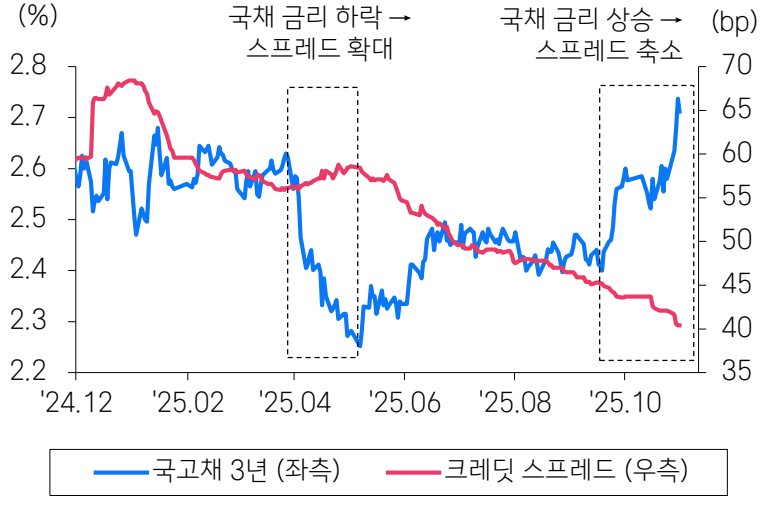
참고: 채권형 펀드 잔고 및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12월 국채 신규물 발행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도 연말 스프레드 확대에 기여

유동성이 떨어지는 크레딧 채권의 경우, 국채 금리의 변동성 바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채 금리 급락/급등 시 스프레드 확대/축소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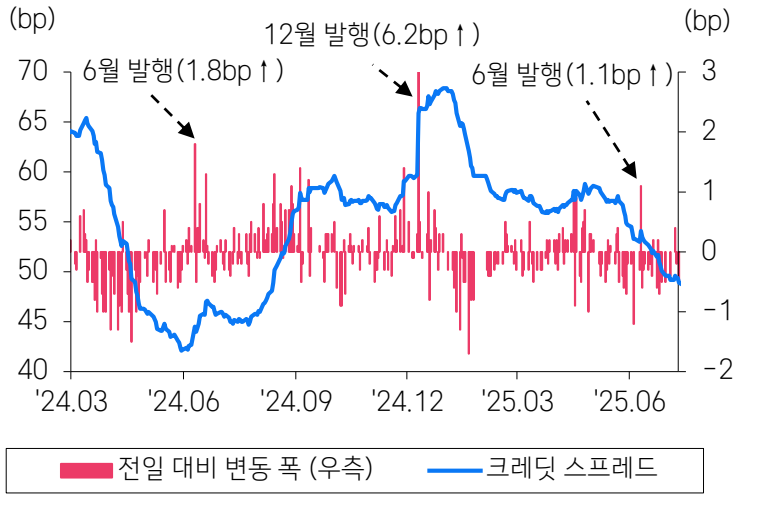
- ▶ 국채와 회사채의 유동성의 차이로 인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의 변동을 바로 반영하지 못해 확대와 축소를 반복
- ▶ 특히 6월 및 12월 10일 국채 3년물 신규물 발행으로 국채 지표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확대됨
- ▶ 12월 회사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폭이 크며, 연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최근 국채 금리의 빠른 확대를 크레딧 채권이 반영하지 못해 스프레드 확대



참고: 국채 3년물 금리 및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6월과 12월 국채 신규물 발행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확대



참고: 국채 3년물 금리 일간 변동 폭 및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단기자금의 움직임으로 인해 연말 단기 금리의 급등도 크레딧 시장에 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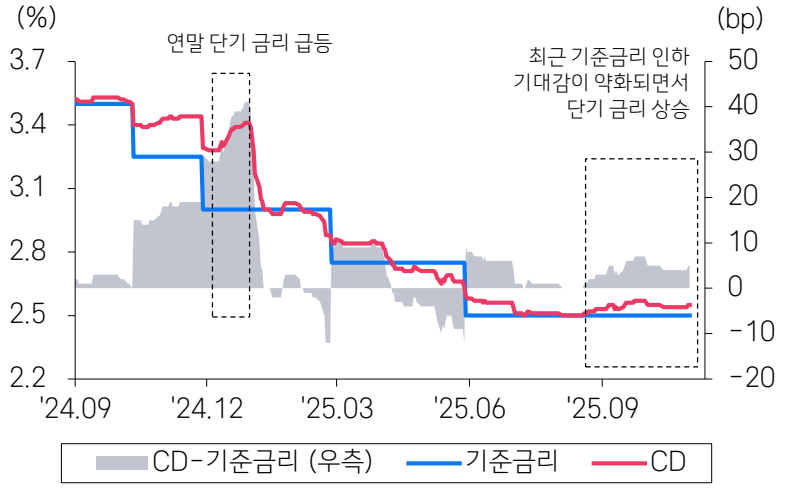
연말 MMF 등 단기자금 유출에 따른 단기 금리 상승이 연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에 영향

▶ 연말 MMF 등 단기자금 유출에 따른 환매 수요로 CD 및 CP 등 단기자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말 크레딧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작년 말 CD 등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특히 CP-CD 스프레드와 같이 단기자금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로 연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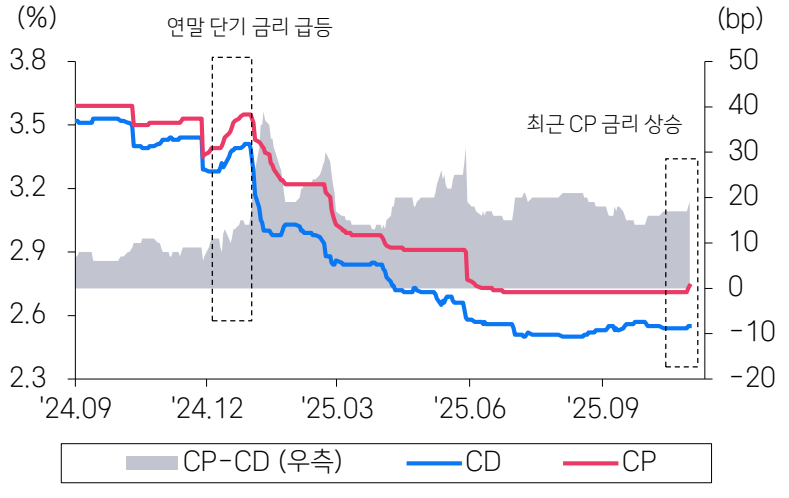
▶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최근 CD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CP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연말 단기금리 상승에 유의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CD금리가 상승세로 전환



참고: 기준금리 및 CD 3개월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낮은 CD금리로 인해 CP-CD 스프레드가 확대 상태 지속, 최근 CP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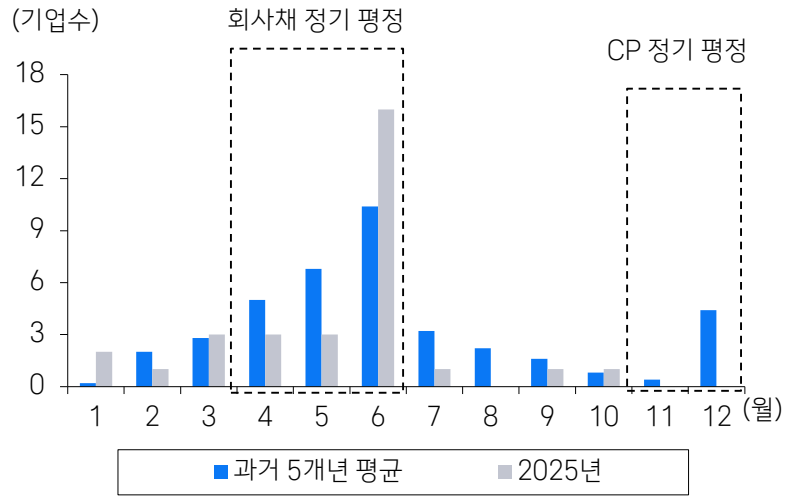
참고: CD 3개월 금리와 CP(A1등급, 3개월) 금리 추이, 단기 크레딧 스프레드(CP-CD금리 차이)
자료: Infomax

11월 CP 정기 평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부담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은 2분기와 11~12월 정기 평정 기간에 집중되면서, 11월 이후 신용등급 하락 부담감이 연말 스프레드 확대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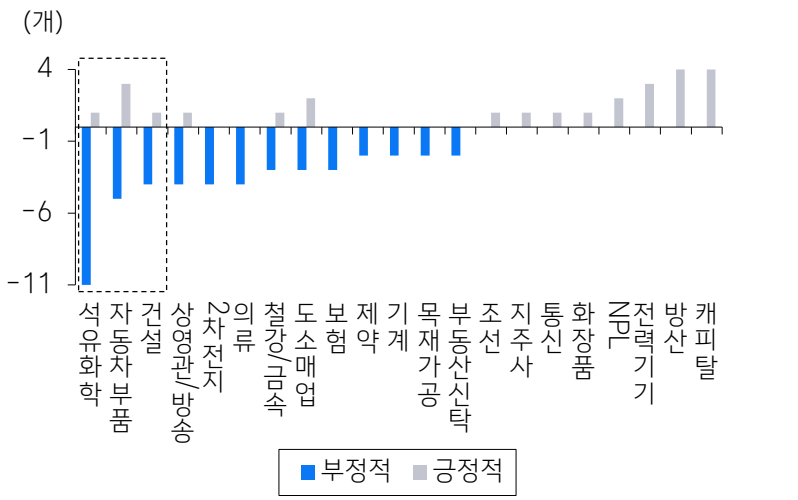
- ▶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은 주로 2분기(4~6월) 회사채 정기 평정과 11~12월에 CP 정기 평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 최근 석유화학 산업군에 대한 추가 등급 하락 우려가 커서, 11~12월 추가 신용등급 하락이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
- ▶ 특히 부정적 등급 전망이 큰 업체 대부분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가 커서 우량/비우량 등급 양극화 및 종목별 차별화 심화 전망

2분기 회사채 정기평정에 이어 11월 CP 정기평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부담



참고: 월별 신용등급 하락 기업 수, 과거 5년 평균(2019~2024년 신용등급 하락 기업 수 평균)
자료: Infomax

석유화학 산업군의 부정적 등급 전망이 많이 추가 등급 하락 우려가 큼



참고: 2025년 10월말 기준 신용등급 전망
자료: Infomax

우호적인 발행 여건으로 순발행에도 연말까지 발행 규모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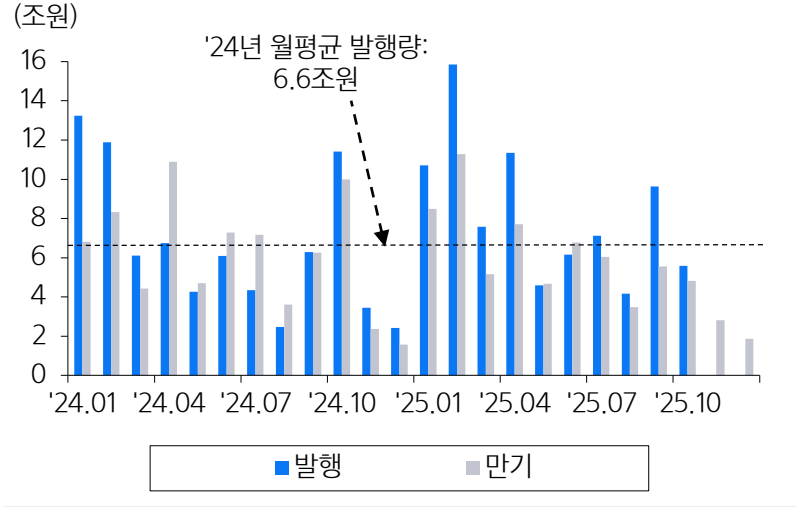
매년 11~12월 연말을 앞두고 회사채 만기 및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패턴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

▶ 올해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선발행 니즈로 9월 발행이 크게 증가했으나, 10월은 영업일 수 감소 등으로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

▶ 11~12월은 계절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회사채 만기와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시기로, 올해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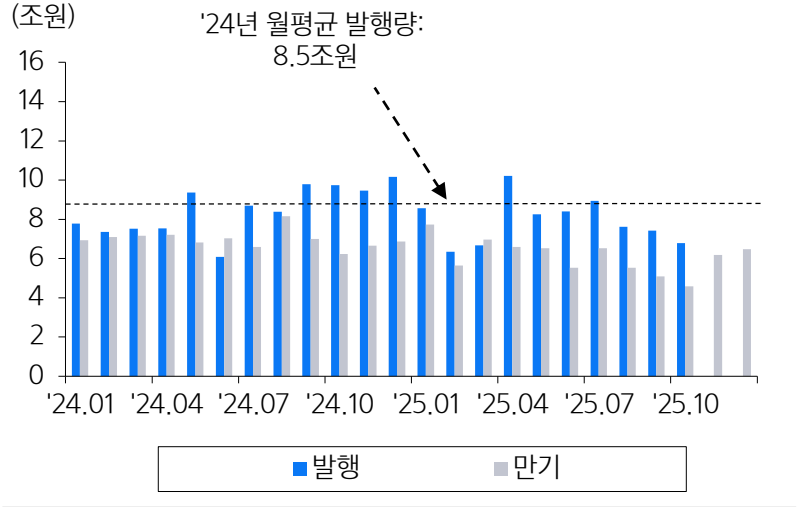
▶ 여전채 만기는 11~12월에 다소 증가하지만, 올해 우호적인 발행 여건으로 순발행이 크게 증가했던 만큼 발행 니즈는 크지 않을 전망

일반 회사채: 11월 이후 연말까지 만기 도래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



참고: 월별 일반 회사채 발행 및 만기
자료: Infomax

여전채: 11~12월 만기 증가에도, 순발행 지속으로 조달 니즈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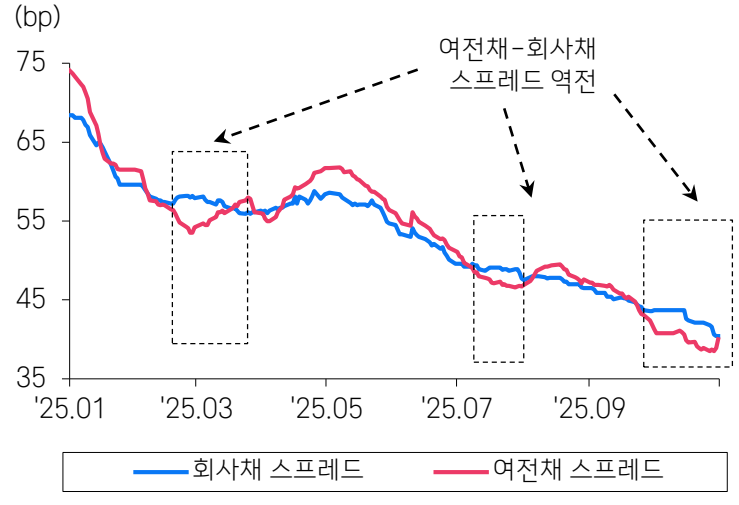
참고: 월별 여전채(카드채+캐피탈채) 발행 및 만기
자료: Infomax

10월 중 여전채 강세가 유지됐으나, 10월말 급격한 여전채 스프레드 약세

10월 중 여전채 강세가 유지됐으나, 10월말 급격한 약세를 보이면서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 → 연말 여전채 약세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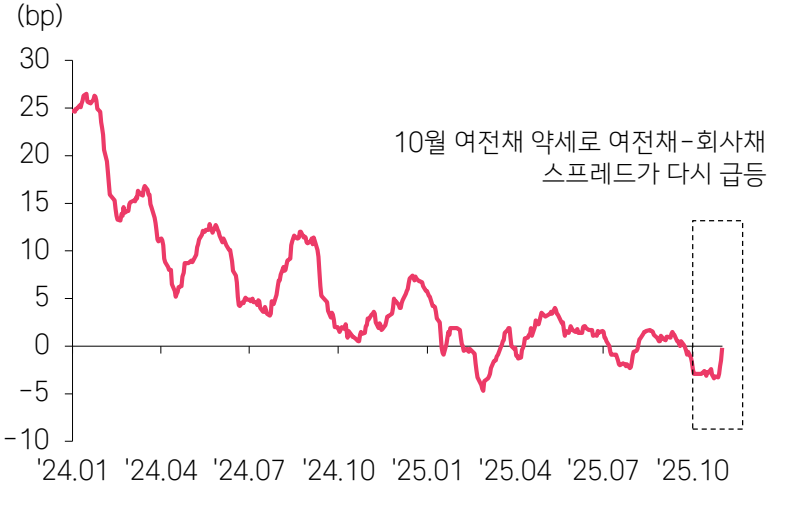
- **여전채는 회사채 대비 비교적 발행 주기가 매월로 빈번하고 발행 물량이 많아, 시장의 투자 심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음**
- **10월 금통위 및 3분기 GDP 속보치 발행 이후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10월말 여전채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됨**
-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크지 않은 가운데, 최근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레포펀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10월 중 여전채 강세가 유지됐으나, 10월말 여전채 약세로 스프레드 확대



참고: 여전채 및 회사채 스프레드(AA-등급, 3년물 기준)
자료: Infomax

10월말 여전채 약세로 인해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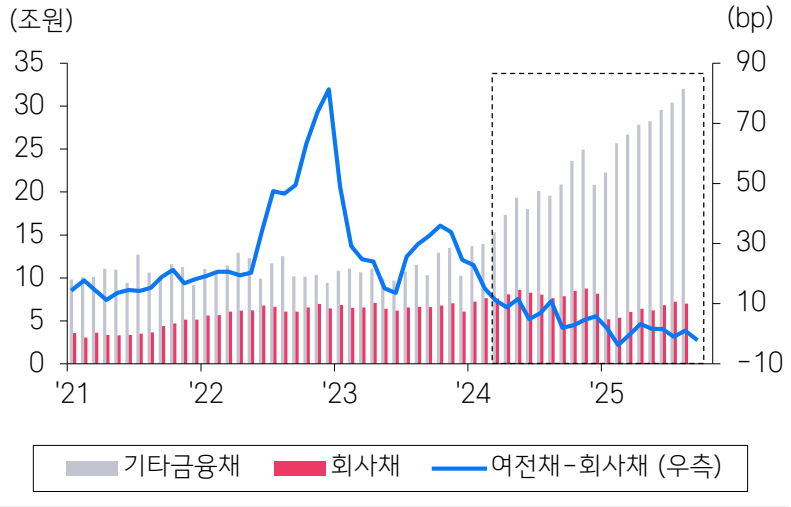
참고: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AA-등급, 3년물 기준)
자료: Infomax, 삼성증권

추가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레포펀드의 여전채 매수세 지속에 대한 우려

지표 상 확인은 쉽지 않지만, 10월 금통위 및 3분기 GDP 속보치 발표 이후 여전채 매수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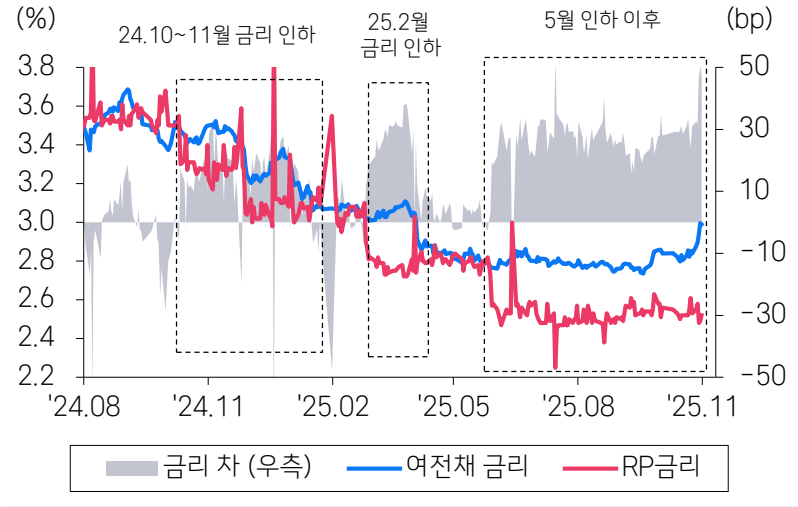
- ▶ 10월 금통위 및 3분기 GDP 속보치 발표 이후,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으며 내년 인하 전망도 불투명해졌음
- ▶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지만, 채권 금리의 빠른 상승과 여전채-RP금리 차가 확대되는 등 레포펀드의 수익성 개선은 지속됨
- ▶ 지표상 확인은 쉽지 않지만,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전채 특성과 여전채 스프레드의 고평가 및 장기적으로 RP 금리의 상승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반영되면서 레포펀드의 여전채 수요 둔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기관간 Repo 거래에서 여전채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전채 강세



참고: 여전채- 회사채 스프레드(AA-등급, 3년물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Infomax

여전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여전채-RP 금리 차 확대로 레포펀드 수익 지속



참고: 여전채 금리(AA-등급, 2년물), RP금리(종합)
자료: Infomax

11월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 요약

11월 크레딧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전망과 크레딧 스프레드 방향성

구분	요인	전망 요약	10월 영향도 (-3~+3)	11월 영향도 (-3~+3)
국채 금리	국채 금리 방향성	최근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으며, 매파적인 한은의 스탠스로 인해 국채 금리는 추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	-2	-2
	국채 금리 변동성	국채 금리 레벨은 높은 수준이나,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 및 내년 우호적인 GDP 성장률 전망 등으로 인해 금리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	-3	-3
수급	채권관련 자금 추이	연말 채권관련자금 유출에 따른 환매와 북클로징에 따른 매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11월 이후 연말 스프레드 확대 압박이 가중될 전망	+1	-2
	회사채 발행 추이	11월 이후 회사채 만기 도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회사채 발행도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공급 부담은 크지 감소할 전망	+2	+2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	10월 회사채 발행 감소에 이어 11~12월도 3분기 검토보고서 제출과 연말로 인해 발행이 크게 감소할 전망. 그러나 낮아진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 부담으로 인해 발행 스프레드 축소 폭은 크지 않을 전망	+1	0
펀더멘탈	신용등급 변동성	11월 중순 3분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 CP 정기 평정으로 신용등급 변동이 나타날 전망. 특히 석유화학 산업군의 등급 하락 우려가 클 전망	0	-2
크레딧 스프레드 방향성		올해 4월말 이후 6개월 가량 지속된 스프레드 축소 흐름으로 작년 5월말 전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레벨 부담이 커졌으며, 11월 이후 연말 계절성으로 인해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압박을 받을 전망	**-1**	**-3**

참고: (-) 부정적인 영향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 긍정적인 영향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자료: 삼성증권

PART 02

크레딧 채권 투자 전략

섹터별 스프레드 변화: 섹터별 스프레드 축소에도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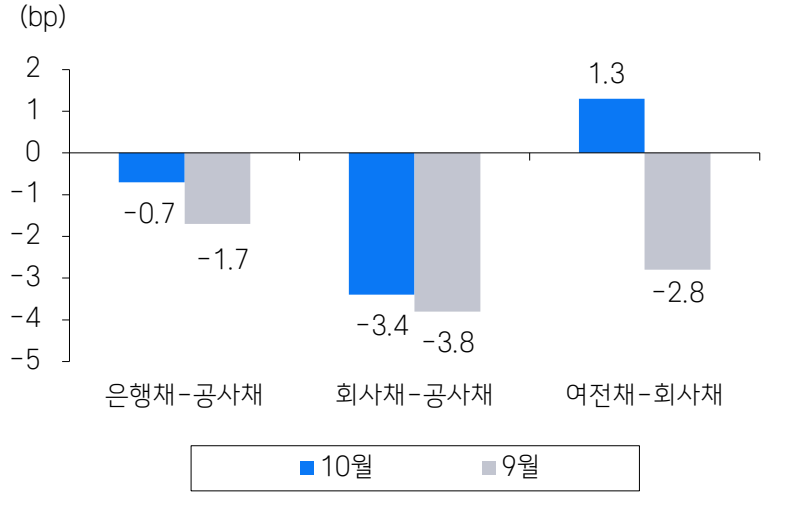
은행채-공사채 및 회사채-공사채 섹터별 스프레드 축소 흐름은 지속됐으나, 10월말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 상대적으로 스프레드가 높은 섹터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대부분의 섹터별 스프레드가 축소됐으나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만 확대

▶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는 여전채의 강세로 인해 역전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여전채가 10월말 강세 폭이 크게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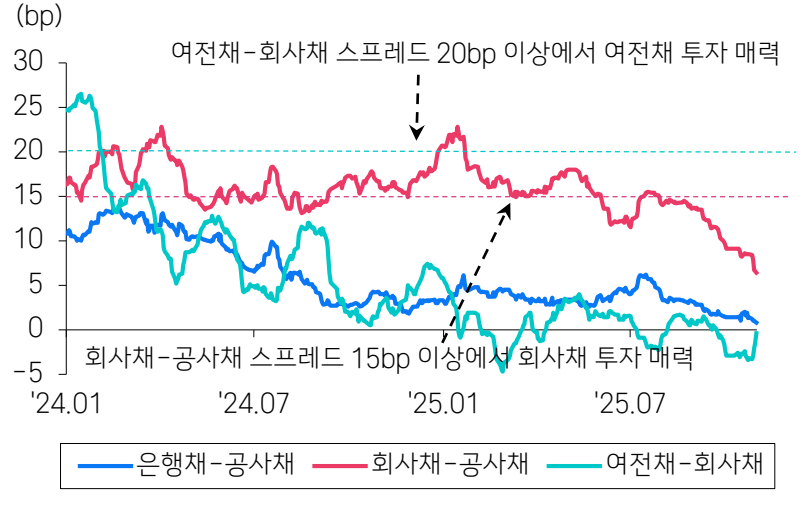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단기금리 상승 등으로 레포펀드의 여전채 매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여전채 약세가 이어질 전망

월간 섹터별 스프레드 변화: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참고: 3년물 기준, 공사채/은행채/회사채(AAA), 여전채-회사채(AA-)
자료: Infomax

섹터별 스프레드 축소 흐름 속에서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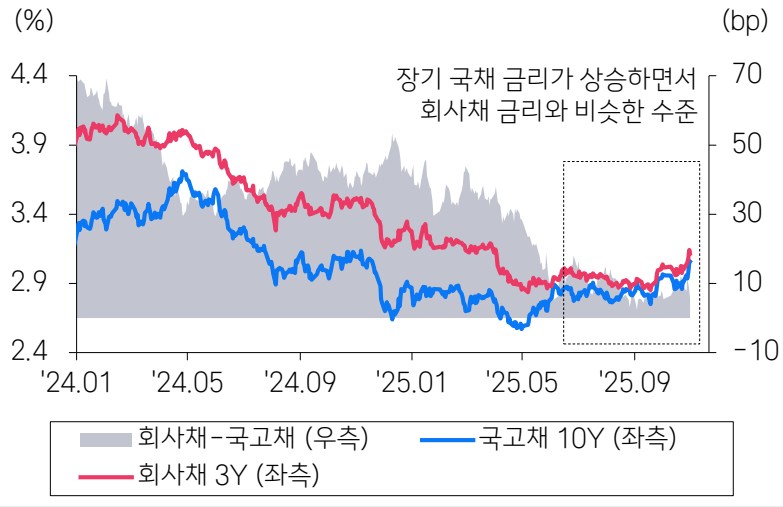
참고: 3년물 기준, 공사채/은행채/회사채(AAA등급), 여전채-회사채(AA-등급)
자료: Infomax

금리 상승 시기에 캐리 수요로 단기 크레딧 채권에 대한 수요 확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캐리 수익으로 단기 크레딧 채권 수요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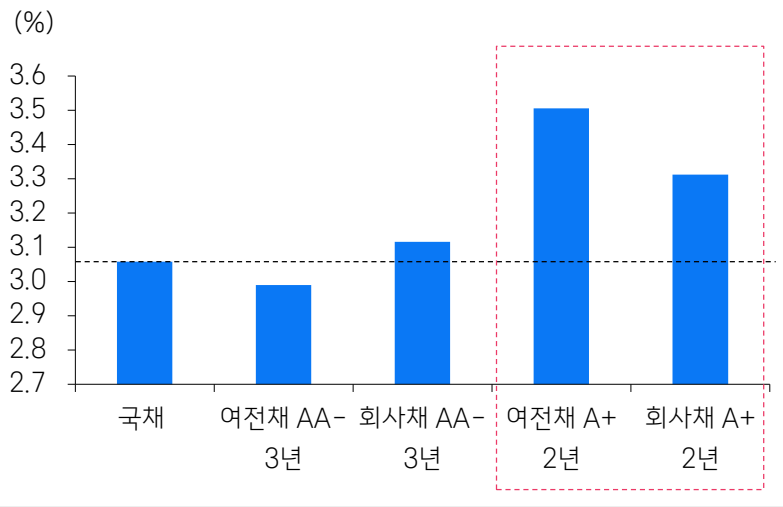
- ▶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회사채 3년과 국채 10년 금리가 비슷해지면서, 캐리 수익 차원에서 장기 국채 투자 매력이 증가
- ▶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기 국채의 듀레이션 리스크로 인해 단기 크레딧 채권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
- ▶ 우량 등급 3년물 이하 만기에서 장기 국채 금리보다 투자 매력이 크지 않아, 오히려 A등급에서 2년물 투자 수요가 더 클 것으로 전망

금리 상승으로 캐리 매력에도 듀레이션이 긴 장기 국채 투자 매력이 감소



참고: 국채 10년 금리 및 회사채 AA-등급 3년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국채 10년물 대비 캐리 수익이 높은 2년물 A등급 크레딧 채권 수요 확대



참고: 2025년 10월 31일 민평 금리 비교
자료: Infomax

등급간 스프레드: 캐리수요로 A등급 단기채 수요 확대에도 종목별 차별화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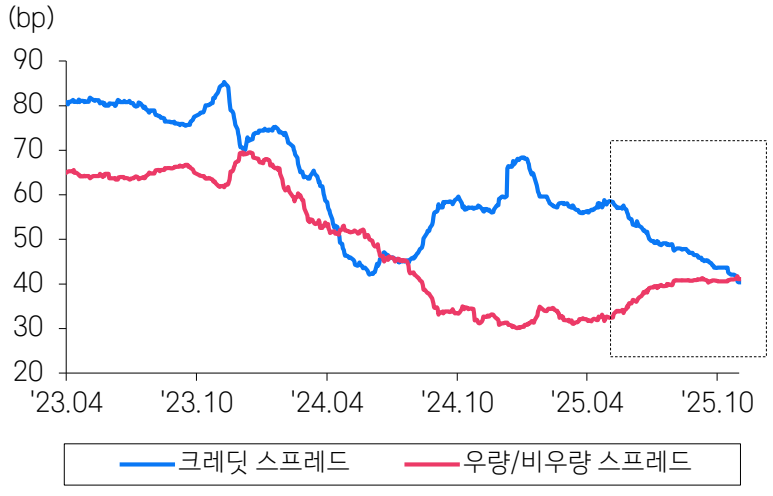
금리 상승으로 A등급 단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나, 위험산업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양극화와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

▶ 올해 4월말 이후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세가 지속됐지만, 우량 등급 위주의 스프레드 축소로 우량/비우량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음

▶ 크레딧 강세와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 크레딧 강세가 크레딧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수급에 따른 강세로 나타났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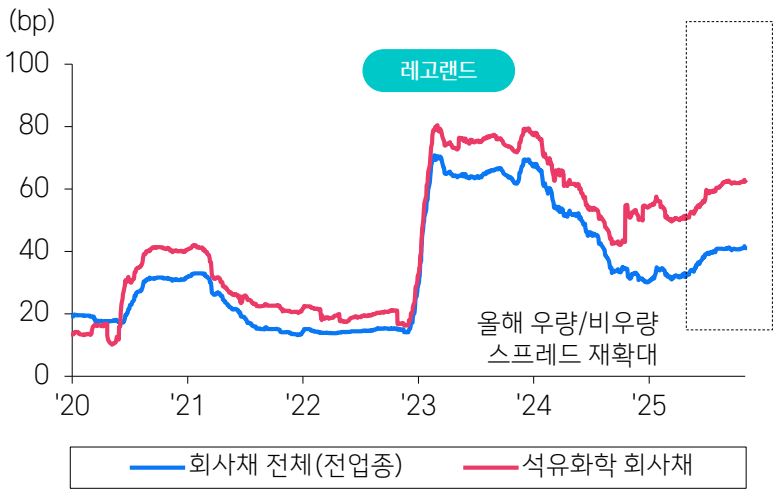
▶ 금리 상승으로 A등급 단기물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나, 위험 산업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양극화와 종목별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

크레딧 스프레드와 우량/비우량 스프레드: 크레딧 강세에도 양극화 심화



참고: 우량/비우량등급 간 스프레드(회사채 A+등급-AA-등급 스프레드)
자료: Infomax

올해 석유화학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량/비우량 양극화 심화 지속



참고: 석유화학 주요 기업 회사채 3년물 A등급-AA등급 금리 차이(등급별 평균)
자료: Infomax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MEMO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